

고은 불교대하소설

의 시절도 깨닫는 무사승(無事僧)하고는
무엇하나 뜻이 같을 수 없지... 없구말구.
"허허 내가 보살을 기른 것이 아니라
귀신을 부를러 놓았구나."

"인담! 당신은 이 우녀가 남은
아비 없는 자식임을 왜 몰라...
장장생(長長生)에 당신은 내
태 안에 잘못된 씨앗이었
어."

"허허 이런 귀신이
백은 송장 뜯어먹는
소리를 하는군."

그러나 파도기둥
의 뒷부분이 큰 덩
치로 밀려서 그들
은 함께 벌레 아래
의 마당에 쓰러져
서 그 물살에 저
만큼 떠나가기
까지 하였다.

그들은 어느 쪽
의 외사와도 상관없
이 서로 얻겨있었
다. 가까스로 힘쓸려
가는 파도의 끝자락이
그들을 바위 크트머리
에 남겨놓아서 바다 쪽으
로 밀려 나가지 않았던 것
이다.

두 사람은 본능적으로 서로
껴안아진 채 바위너설 모서리를
꼭 붙들고 있었다.

그런 동안 그들은 이 섬에 온 이래
처음으로 음양으로서의 목적이 일어난 것이
다. 세한 비바람을 그칠 줄 몰랐다.

대중들도 이런 바깥으로 나온 생각을
할 수 없게 섬 전체가 비바람에 내맡겨졌
던 것이다.

인담과 우녀는 처음으로 격렬한 자기
주장 끝에 파도에 얻어맞은 피동체로서
뜻밖의 사태로 나아가게 되어 어쩔 줄 몰
랐다.

하지만 우녀는 그녀의 목에 걸고 있던
염주를 잡아채어 끌어버렸다. 108개나 되
는 염주 알이 다 흩어졌다.

"이 따위 육계(欲界)의 장난 그만 둘시
라"

그들은 한가닥 수처심 따위도 없
이 반발거승(反發 거승)이 되거나 땀별
거승(汗別 거승)이 된채 그들의 처소로
가어가야 하였다.

그런 뒤로 두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경
상상태로 돌아가 무욕도의 살림을 태연히
꾸러가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 사이는 그 이전처럼 화합
하지 않았다. 우녀는 우녀대로 이곳을 마
감할 생각이 자라났고 인담은 그런 우녀
를 막아야 할 뜻이 스멀스멀 일어났다.

흔로 나오 흔로 죽고 흔로 가고 흔로
오고(興生興死興去興來)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의 입이 이 말을

"이제 이 도량을 닫아요" 우녀가 외쳤다
"그만두다니! 그런 소리 할테면
이 파도에 몸이나 보시하구려"

그러자 삼승행자가 그 아름다운 얼굴에
이 세상에서 처음 나타내는 분노 가득히
"이제 보니 당신은 부처님과는 1028천
리나 멀리 있는 중생들이군요!" 하고 소
리쳤다.

이렇게 되자 인담 우녀는 뭉뚱이그 효
영 명오 그리고 어린 행자들까지 모여들
어 사단이 벌어진 것이다.

이마 그들의 모사가 다 알려진 마담인
지라 그들 세 사람들도 처음 당황해하는
마음을 바꿔서 무욕도의 사람들과 정면으
로 맞서야 하였다.

"도대체 부처님도 모시지 않는 도량이
무슨 도량이야! 여기는 필시 인담 우녀가
도망쳐 와서 사는 곳일 뿐이야."

"부처님의 법이란 것이 뭐란 말이야... 세
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을 헛되다 헛되다 하
면서... 나 앓다 나 앓다 하면서 내가 제일
이라고 떠벌이는 수작이나 부리면서..."

"어디에 붙어있는 줄도 모르는 허깨비
천축에서 도를 얻었다는 사람이 우리 조
선에 무슨 소용이 있던 말이야."

"지금 조선이 부처님을 때려부수고 태
우고... 중들은 도상에 들어놓지 않는 까
닭이 있지... 없구말구."

"이 무욕도에서 공부 잘하는 놈이 극락
가? 지옥밖에 갈 데 없지... 피람 흘려
지는 곡식이나 거저 훔치고 있는 나날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 그 말이야."

"네 타던 우리아 배 타는 수밖에... 다
른 도리가 없어..."

그렇게 나오는 명오에 더러 겁이 났다.
명오는 태연에 능한 사람이었다. 송도
삼상(善相)들의 먼 길에 동행하며 그들을
보호해주는 호신술로서의 태연의 유단자
였으나 효영을 만나 새로운 삼승 살기 시
작한 사람이었다.

"세 사람의 불뼉은 쪽연의 입이 다물어
졌다."

"이 불땀한 놈들아. 어서 꺼져라... 네
놈들은 필시 예성강 나무에 들어가기 전
에 저승으로 갈터인구."

명오는 인담이나 효영에게 의는 할 겨
를도 없이 세 사람을 한번씩 넘어뜨려 기
운을 죽여놓은 뒤 그들을 일으켜서 선착
장까지 걸게 하였다.

"자... 우리가 타고 온 배는 내줄 처지
가 아니다... 그러즉 이 때에나 타고 건너
가거라."

세 사람은 머뭇거렸다. 명오가 한번씩
명치들을 질러주었다.

"어루!"
"어루!"

세 사람은 배를 끌어올려서 바위동성을
내려갔다. 세 사람이 타자 제법 큰 때때가
물에 출렁였다. 싹대 두 개를 명오가 던져
주었다.

"이놈들아 아재아재바라아재 바리승아
제나 열심히 외우며 예성강으로 가던가.
삼도천(三道川)으로 가던지 하여라."

그때였다. 각효영이 명오뒤에서 나아갔
다.

"자네를 어디로 갈테냐? 도대체."
"....."

"아무래도 며칠동안 바다 위 날씨가 심
상치 않으니... 며칠만 여기 있다가 가면
아름겠다..."

"효영형님, 안됩니다. 그대로 보냅니다"
라고 명오가 단호히 막아냈다.

"가는 것을 막으면 흐르는 물을 막는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 효영과 명오는 친구 사이였는데도
이곳에서는 서로 그득한 경어를 주고받는
처지였다. 세 사람의 때를 선착장 구석에
걸쳐둔 긴 막대기로 힘껏 밀어버렸다.

결국 때는 바다 위에 떠다.

"더시 이 도량을 붙어올 생각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명오를 인담과 우녀들도
그의 뜻을 따르는 뜻이 입을 다물고 있었
다.

그림 · 조향숙



그들은 떠나다

우 식행자에 의해서 세 사람의 심
상치 않은 속덕공분이 인담에게
알려졌다. 인담은 그런 일이 없
었던 것처럼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다. 우녀에게까지도.

그런 인담은 이따금 우녀와의 돌만의
대화에서는 이 섬을 어떻게 회향할 것인
가를 은밀한 화제로 삼은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드디어 우식에 항부로 입을 열지 말
라고 일러주었다. 인담으로서의 상수의 장
려를 미한 뒤에 바로 잇대어진 그런 일을
신중하게 헤아려볼 필요가 있었다.

맞달전 거의 태풍에 버금하는 큰 비바
람이 불어닥쳐 파도기둥이 무려 열다섯길
쯤이나 치솟아가며 무너지기를 되풀이하
던 그 역전 비바람 속에서 두 사람은 그
비바람과 마쳐 날뛰는 파도와 파도기둥의
포효 속에서 입을 옷이 젖음대로 젖은채
거의 맨 몸 그대로 드러나는 것도 개의치
않고 무욕도 도량을 닫아버릴 것인가, 그
대로 두어야 할 것인가를 그 자연의 폭력
과 더불어 서로 큰 소리로 외치며 주장한
적이 있었다.

아니, 그 자신도 이제 무욕도 수행의 시
절이 다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난
데없는 예감이 바다 멀리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보타라기심으로 떠나는 상수와 그 비
장한 정려를 통해서 생겨났던 것이다.

"이제 이 도량을 그만두고!"라고 우녀
가 외쳤다.

하지만 그는 무욕도를 오랫동안 무인도
고도로 있었던 것을 그 갈매기둥이 덕지
덕지 늘어붙은 바위동성이 섬을 세상이
잘 모르는 수행도량으로 연 외지를 통해
서 아직도 무욕도에 대한 확신을 저버리
지 않고 있었다.

"그만 두다니! 그런 소리나 할테면 혼
자 이 파도에 몸이나 보시하구려."

그는 끝없는 예감이나 현재와의 확신
어느 쪽에 대해서도 무척 조심스러웠다.
그것은 마치 모든 일에 삼가하기 좋아하
는 심성이 깊은 처녀가 깊은 우물에 내리
는 두레박질을 아주 경건하게 하는 것과
도 같았다.

"인담스님! 당신이 아무리 이 섬을 지
키려 해도 안될 말! 성주귀공(城主歸空)

"상을낭자! 영웅호걸의 마누라가 되어..." "이놈들아 어서 꺼져라"

다. 이게 바로 괴로운 세상을 괴롭지 않
다고 할듯 믿게 하는 것이오."

"맞이 맞아!"라고 인담이 꾸짖었다.

"어서 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에나 올
라갑시다. 서로 웃어도 그것이 운우지장이
되고 아기를 배는 일이 될테니..."

"망상이 많아!"

그러는 동안 기어이 그들은 파도에 힘
쓸려 바다에 밀려나가 허우적대게 되었다.

벌레 판물을 실컷 들이켜게 된 우녀를 인
담이 필사적으로 이끌어서 밀려오는 파도
의 등을 타고 바닷가의 바위모서리를 가
까스로 붙잡을 수 있었다.

인담도 우녀도 입었던 옷가지가 어느새
벗겨졌고 염주가 바위 모서리에 다쳐 피
가 씻겨지는 상태였다.

인담도 우녀도 입었던 옷가지가 어느새
벗겨졌고 염주가 바위 모서리에 다쳐 피
가 씻겨지는 상태였다.

따고 있었던가.

이런 사이이기도 해서 우식이 알려준
세 사공들의 일을 인담은 우녀에게도 알
리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일은 다른 쪽에서 터졌다.

세 사람은 몇번인가 더 모여서 의논을
거듭하던 끝에 우녀의 밑에서 열심히 열
불선을 공부하는 처녀 상을을 그 오빠를
저 세상으로 보낸 슬픔을 부추겨 그녀에
게 함께 무욕도의 최 많은 무위(無爲)를
버리고 떠나자고 권유한 사실 때문이었다.

그 권유는 거의 뱀사람 특유의 협박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들 중의 길성이는 '만
약 낭자가 우리의 함께 하지 않을 때는
남자의 오라비니가 간 곳으로 보내줄 수
밖에 없오'라는 말까지 하였다.

"....."

"상을낭자... 그대도 여기 있다가는 좋
은 시절 다 허송하고 피골이 상갈한 마귀
들린 노가가 되고 말걸... 우리하고 가지
구... 가서 영웅호걸의 마누라가 되어 밤
새도록 넋을 잃는 즐거움을 누리란 말이
야... 그계 극락이란 말이야."

이런 난폭한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명
오가 박발 길성 순종이 앞에 나아갔다.

"더 지저귂 것 있나?" 라고 그가 조용히
물었다.

그러자 세 사람은 머리까지 길건 동어
뱀 뱀뱀을 슬그머니 사리면서 한 발짝씩
물러났다. 그들로서는 이 섬에 함께 건너
온 효영이나 명오도 그들 편을 들어줄 것
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던 속셈이었는데

어떻겠나..."

"효영형님, 안됩니다. 그대로 보냅니다"
라고 명오가 단호히 막아냈다.

"가는 것을 막으면 흐르는 물을 막는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 효영과 명오는 친구 사이였는데도
이곳에서는 서로 그득한 경어를 주고받는
처지였다. 세 사람의 때를 선착장 구석에
걸쳐둔 긴 막대기로 힘껏 밀어버렸다.

결국 때는 바다 위에 떠다.

"더시 이 도량을 붙어올 생각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명오를 인담과 우녀들도
그의 뜻을 따르는 뜻이 입을 다물고 있었
다.

현대불교

생각의 장막

본 권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경고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경고에서 찾으십시오.

● 생활운용 ● 개인업제
● 불교관련물 ● 정보포스츠
● 지체홍보 ● 안내
● 각종행사 ● 신상홍보계몽

문의 (02)737-8881 (공고국) 팩스 (02)737-0697

보리수

취급 | 각종수입항, 업주 | 일체 품목 불교약세사리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 778-5345, 팩스: 777-1917

神祕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남 · 선녀궁합, 학생적성 ☎ 738-2045, 2046 현대 불교 신문 사설 韓國民俗哲學研究所

明堂 사찰부지(급매) ● 경기도 여주

● 위치: 경남 거창군 남상면(王福洞) ● 면적: 3330평
● 가격: 정당 6300원(1세대정당) 일사불조정가
● 특징: D24차선 도로 일일(코리도) 정당과 도로에서 길거리 1km) D24차선 도로, 88고도도 지점 10여(4000평, 영수공용, 기도원, 최선수원부지, 명지목(다용도인) D24차선(일일정당)지점, 선세수원지

연락처: (0343)71-7242, 74-7775(산주)

포교원 운영하실 분

주목하신던 스님이 일선상의 이유로 후임자를 찾으시라

위치: 동대문구 장안4동
면적: 50평 (1차실 할재차비)
비용: 보증금 3000만원
시설비 1800만원 월세 40만원
연락처: (02)245-0904
● 운영 즉시 열회 가능합니다.

디스크 · 관결염 · 비만 시술 및 개인지도

● 각 관결 · 척추 · 골반 · 교정법
● 음양오행 · 기공 지압법
● 목 · 허리 디스크, 신경통, 관결염
● 비만 · 중풍예방 시술 · 지도

전화: 543-7306 · 711-4370
長三洲 혁주교정 · 지압원

사람을 찾습니다

찾는사람: 하동수
신문을 보는 즉시 연락바라다.
누나 하미영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로 393-1
대원사
전화: 0331)262-0606

늘지않는 피부관리(남·여)
기미·여드름·검버섯·늘어진얼굴

블리핑미관리비원비

입구정점 3443-0996 강남전철역점 563-5791

小白山 명봉사

산세가 수려한 곳에서 기도할 휴양할실 몇분을 모십니다.

● 위치: 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 숙식 제공 및 1인1실 · 기동보일러
연락처: (0444)22-1094 22-0347

포교당 안내

● 위치: 망우 사거리 ● 평수: 30평
● 보증금: 천만원(월 40만원)
● 시설비: 천만원
● 연락처: (02)494-3929 (073)73-3464
011-218-6055 011-535-3321 012-296-6055

20년 전통의 모범업소(안면이피도 882호)
소망 결혼 상담소

한아름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해나갈 평생 반려자를 찾지않게 도와드립니다. 김은희 상담사

초혼 의사, 박사, 관, 관세
합정고시 합격자
재혼: 시업자, 공무원, 최자원
- 책임상담원 -

문의 전화
주인 (02)783-1777
이진 (0343)47-1046 47-3193

포교당 안내

위치: 부산 온천동 최요지
평수: 36평
● 보증금 1500만원, 월세 60만원
● 시설비 · 비품대 가격절증가

연락처: (051)514-0331~2

포교당 양도

▶ 구리시 중심가 최고 요지
▶ 9년 전법 도량
▶ 약 40평(100~150명 범위가능)
▶ 비용: 3500만원(상당)
▶ 보증금 1000만원에 20만원
▶ 시설비 2500만원

일선상의 이유로 급히 양도코져 하오니 문의바랍니다.

관음정사
전화: (0346)67-2812
주소: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06-1 박인성 법사

탁자, 달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불사업적
· 원전(대원사)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원전(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달집 문짝
· 서울(대원사) 법당 수미단 문장 목련화
· 용인(법보사) 대웅전 문장
· 화진(법보사) 대웅전 문장
· 중부(법보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조각
· 가산(법보사) 대웅전 문장 달집
· 포천(법보사) 대웅전 문장 달집
· 단양(법보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조각
· 서울(법보사) 최관 상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팩스 011-292-4609
자택 02-248-4609
공방 0346-571-9538
호출 012-210-1401
대구시 합천

탈종공고

주소: 경북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746번지
사찰명: 용담사
주지: 배현풍

본인은 귀종단의 중지 · 중풍을 수행 할수 없어 탈종을 공고합니다.

1996년 11월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불교공예

본 불교공예에서는 20년 전통의 신용과 기술로써 각 사찰의 법당을 장식하여 천 년을 기려 남을 평생의 찬 하여 봉사하겠습니다.
대표 임태복 협동

전도 설계사: 서정환, 문단
속초 구계암: 원불전, 달집, 선전장, 문장
제주도 원각사: 불단, 달집, 법상 조각
실악산 오세암: 원불전
삼각산 연취정사: 원불전, 달집 등
구로동 원흥사: 불단, 문장
봉곡사대원: 불단, 문장, 경각의
양주리 보문정사: 불단
현양 일수암: 불단, 달집, 원불지 다수 사찰 불사

연락처: (0346)553-6480